

國民學校 아동들의 生理實態에 關한 調查研究

고 영 애 *

A study on the status of menstruation of elementary school girls.

Young Aie K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atus of menstruation of elementary schoolgirls.

The date was collected from 20th May to 3rd June, 1989.

The survey was conducted by using prepared questionair and 859 6th grade schoolgirls in 7 public elementary schools in Seoul were sampl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study are summerized as follows.

1. 13.9 percent of the school girls have experienced menarche. 0.7 percent of them began in 4th grade, 5.8 percent began in 5th grade and 7.0 percent of them began in 6th grade.
2. Among them 90.8 percent had knowledge of menstruation before menarche. 43.7 percent of the respondents learned it through their mothers and 27.8 percent learned it through teachers.
3. About the menstruation, the girls who think it as a physiological phenomena as a woman showed 52.9 percent and 14.3 percent of them thought it was trouble some but, being a woman, regarded it as a inevitable thing. The repondents who think menstruation is tiresome and want not to have it were 31.9 percent.
4. At menarche 20.2 percent of the girls managed it by themselves, 72.3 percent disposed of it by asking someone and 2.5 percent of them managed it by their family members when the sign was detected.
5. During the menstruation 72.3 percent of the samples had some symptom and the most common symptom was abdominal pain(84.9 percent).
6. In menarche only 16.8 percent of the girls had positive response.
7. In their present menstruation 35.3 percent of them had positive response on it.

* 적십자간호전문대학

I. 서 론

옛날부터 인간생활의 필수사항으로 의·식·주를 가르쳐왔으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발육과 더불어 동반되는 성숙과 심리적 변화이다. (Mandetta and others, 1974). 특히 처음 나타나는 성징으로 아동들은 당황하며 수치심과 불안 등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Inman, 1974: Kinsey and other, 1953)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생리변화에 대한 충격이 크고 그에 대한 처리도 용이치 않다(변, 1979). 또한 이 시기의 소녀들에게는 생리적인 면에서든 심리적인 면에서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초경의 경험이며 이 일을 계기로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제, 정, 1982) 신체적으로 조숙의 추세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생리 및 심리적 변화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어 주고 성의 올바른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변, 1979). 초등교육 연령층은 성교육이 정서적 문제가 되지않고 이 시기에는 이미 좋지 못한 곳으로부터 성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얻기 시작하여 올바르게 못한 태도를 가질 우려가 있는 시기이며(이, 1978) 여아들의 성 성숙의 지표는 월경이 되기 때문에(김, 1969) 국민학교 여아들의 최근 생리상태가 과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여 국민학교에서의 성교육의 기초자료를 삼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문 헌 고 찰

급속하게 전진하는 사회적인 성 자유화 현상으로 성교육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으며(김, 1975) 성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것으로 이미 성교육을 다루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루어나는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황, 1975: 이, 1964) 여성에게 있어서 월경의 시작은 성적 성숙의 첫 단계로 월경은 여성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Marlow, 1969) 아울러 월경 이

전에는 막연히 생각되어지던 역할이 월경이후부터는 현실적으로 대두된다(이, 1976). 처음에 월경은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의 행복한 증상이자 동시에 고통스러운 경험이나(Black & Wright, 1963) 계속해서 월경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면서 차차 내적 안정을 얻게된다(이, 1976) 월경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자궁출혈을 말하며 이는 자궁내막이 증식되었다가 일시에 탈락되므로 출혈이 있게되는 현상으로서 사춘기에 시상하부뇌하수체의 활동으로 시작되어 갱년기에 이르러 난소기능이 소실됨으로서 영구히 없어지게 된다(최, 박, 1970). 사춘기의 시작을 보기위해서 초경년령조사를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족, 문화, 도시, 계급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많으며(김, 1969: 하, 1978: 김정휘, 1977) 문화발달과 생활향상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훨씬 빠른 연령치를 보이고 있다(김, 1969: 김정휘, 1977). 사춘기의 급격한 생리학적 변화는 이 시기의 여아들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바 사춘기에 일어나는 정서나 기질의 불안정성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는 초경전 2~6개월 사이에 나타나 급격히 증식하며(장, 1972) 성적 무지로 오는 월경에 대한 공포심이나 수치심 등의 원인이 되어 월경 곤란증이 오는 수도 있다(박, 1982). 월경을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숙한 여성이 갖추어야 할 선행조건중의 하나이며 월경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려면 먼저 월경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이, 1976). Marlow(1967)는 지식의 결여가 생리거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중의 하나로 보았으며 문, 양(1980), 고(1979), 박(1977), 김(1975), 이(1971) 등은 월경전 월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초경시 심리상태는 초경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는 층에서 안정된 상태임을 나타냈으며(김, 박, 1970) 나이가 어릴수록 정서변화가 많았고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고통이 많았다는 보고가 있었다(서, 박, 1977).

III. 조사대상 및 방법

조사기간은 1989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였으며 조사대상은 서울시내에 소재해 있는 7개 공립국민학교 6학년 여자 859명이었다. 조사방법은 보건교육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여학생끼리만 모이게 한 후 미리 준비된 객관식 설문지를 배부하여 기록하게 한 후 회수하였으며 자료처리는 백분율과 χ^2 test를 사용하였다.

IV. 조사결과 및 고찰

1. 월경 실시율 및 초경시기

본 조사결과 현재 생리 실시율은 13.9%였으며(표1-1) 4학년 때에 초경을 경험한 여아는 859명의 0.7%인 6명이었으며 5학년 때에는 5.8%의 아동이, 6학년 때에는 7.0% 아동이 초경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2). 본 조사시기와 같은 1학기 때의 서울지역 국민학교 아동의 월경시율은 1971년(이) 9.3%, 1980년(문, 양) 9.2%로서 본 조사에서의 월경 경험빈도가 훨씬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와같은 결과는 경제, 사회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한 신체적 조숙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에 부모 및 교사들은 국민학교 아동의 성장발육에 더욱 관심을 높여야겠으며 적절한 초경에 대한 사전지도를 실시하여 신체적으로 조숙의 추세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생리 및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해야겠다.

2. 초경전 생리에 대한 지식

초경이 있기전에 월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아동은 90.8%였으며 8.4%는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1-3). 1971년(이)에는 31.3%, 1977년(백)에는 32.8%, 1979년(규) 11.9%, 1980년(문, 양) 12.5%, 1989년 본 조사결과 8.4%가 초경전 생리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초경전 월경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아동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초경전 이에 대해 알고 있었던 여아들에 대한 생리정보 제공원은 어머니(43.7%)

선생님(27.8%), 기타(15.7%)순으로(표1-4) 기타에는 언니나 생리대 회사에서 파견나온 교육요원을 기록한 아동들이 많았던 것을 보아 생리대 회사에서도 국민학교 아동들에 대한 생리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1971)의 선생님 51.3%, 어머니 21.3%, 김(1975)의 선생님 29.6%, 어머니 22%, 박(1977)의 선생님 38.0%, 친구 20.1%, 어머니 17.9%, 고(1979)의 선생님 37.1%, 어머니 25.0%, 문, 양(1980)의 책 44.6%, 어머니 17.9%, 선생님 10.1%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들이 딸에 대한 생리교육 참여율이 괄목할 만하게 높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성의 초조지도는 동성의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자연적이므로(이, 최, 1978) 어머니를 통한 정보제공의 증가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월경은 단순히 생리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성성숙의 표시로서 장차있을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며(민, 1977)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도덕적, 윤리적 태도 및 가치관, 어떠한 사실적 지식을 습득시키기 때문에 그 교육과정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바(이, 1978) 어머니들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성교육 지도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생리에 대한 태도

생리에 대하여는 52.9%가 당연하다고 하였으며 14.3%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 31.9%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보였주었다(표1-5). 이(1976)의 여고생의 34.67%, 문, 양(1980)의 국민학교 여아의 37.5%, 최(1981)의 여고생의 44.6%가 당연하다고 나타난 결과보다는 본 조사대상자들의 태도가 훨씬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생리시작 전 이들이 생리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들이 획득한 정보 제공자의 변화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월경은 단순히생리적 현상이라기 보다는 성성숙의 표시로서 장차있을 주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이므로(민, 1977) 단순히 생물

〈표 1〉 ~ 생 리 상 태

	실 수 (%)
1) 생리실시상태	859 (100.0)
한다	119 (13.9)
안한다	740 (86.1)
2) 초경시기 (전체에 대한 비율)	
4학년	6 (0.7)
5학년	50 (5.8)
6학년	60 (7.0)
무응답	3 (0.4)
3) 초경전 생리지식정도	119 (100.0)
확실히 알았음	37 (31.1)
약간 알았음	71 (59.7)
몰랐음	10 (8.4)
무응답	1 (0.8)
4) 초경전 생리정리 제공원 (108명에 대한 비율)*	
어머니	47 (43.5)
선생님	30 (27.8)
친구	6 (5.6)
책	6 (5.6)
기타	17 (15.7)
5) 생리에 대한 태도	119 (100.0)
당연한 것	63 (52.9)
어쩔 수 없는 것	17 (14.3)
안했으면	38 (31.9)
무응답	1 (0.9)
6) 초경처리실태	119 (100.0)
혼자 처리함	24 (20.2)
도움 요청하여 처리함	86 (72.3)
들켜서 처리됨	9 (7.5)
7) 생리시 증상	119 (100.0)
있음	86 (72.3)
없음	31 (26.0)
무응답	2 (1.7)
8) 증상처리	86 (100.0)
참고견담	47 (54.7)
편히 쉬	25 (29.1)
약복용	9 (10.4)
무응답	5 (5.8)

	실 수 (%)
9) 생리증상 (86명에 대한 비율)	
복통	73 (84.9)
권태감	23 (26.7)
식욕부진	21 (19.4)
두통	21 (19.4)
현기증	18 (20.9)
요통	14 (16.3)
오심	7 (8.1)
10) 초경반응	119 (100.0)
긍정반응	20 (16.8)
부정반응	94 (79.0)
무응답	5 (4.2)
11) 현 생리반응	119 (100.0)
긍정반응	42 (35.3)
부정반응	74 (62.2)
무응답	3 (2.5)

* 초경전 생리지식 확실히 알았음 + 약간 알았음

학적이고 생리적인 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전체 성교육의 일부로서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4. 초경 처리실태

초경시 20.2%는 혼자 처리하였고 72.3%는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하였으며 7.5%는 들켜서 처리되었다(표 1-6). 들켜서 처리된 것이고(1979)의 12.6%, 문, 양(1980)의 14.06% 보다는 훨씬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제는 여아들이 초경이 시작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스스로 처리하거나 물어보아 처리할 정도로 심리적인 준비가 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5. 생리시 증상

본 조사대상 여아의 72.3%가 생리시 증상이 있었으며(표 1-7) 증상내용은 복통(84.9%), 권태감(26.7%), 현기증(20.9%) 순이었다(표 1-8). 1971년도(강, 김)의 중고교생의 89.7%, 강(1971)의 도시지역 여성의 86.2%, 1979년도(고) 국민학교 아동의 80.8%, 1981

년도(백) 간호전문대생의 88.7%, 1982년도(윤) 근로여성의 89.2%가 증상이 있었던 결과보다는 생리시 증상은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영숙(1977)의 여고생의 43.5%, 최(1981)의 여고생의 58.7%보다는 증상있는 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처리로는 54.7%가 참고 견디었으며 29.1%는 편히 쉬고, 10.4%는 약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표 1-9) 윤, 김(1977)의 도시여고생의 32.6%가 월경 증상처리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결과보다는 약물복용율이 낮게 나타났다.

6. 초경시 반응

초경시 16.8%는 긍정적 반응을, 79.0%는 부정적 반응을 보여(표 1-10) 고(1979)의 21.9%보다는 약간 낮은 긍정반응을 보여주었으나 문, 양(1980)의 긍정반응 12.5%보다는 약간 높은 긍정반응을 보여 주었다. 초경을 맞이하는 소녀는 성인이 되는 것을 원치않고 생리기간중 자신의 몸을 조절하지 못하므로 생리출현에 분노를 느끼게 되며(Black & Wright, 1963) 초경시 심리적 상태가 그후 월경때마다 재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보건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김, 1983). 그러므로 생리교육시 생물학적인면의 교육만이 아니라 심리적 교육면에 배려를 더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초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7. 현 생리반응

현재 이들의 생리에 대한 반응은 긍정 35.3%, 부정 62.2%의 반응을 보여(표 1-11) 초경시 보다는 긍정반응이 높아졌으나 그래도 반수 이상이 초경후에도 부정적반응을 보여주었다. 현재 생리반응은 1979년도(교)의 32.5%의 긍정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월경실태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모든 것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생리반응면에 있어서는 초경시나 현재 모두 별다른 변화를 발견할 수 없어 교육내용면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고 여겨진다.

8. 초경시기와 제 상태와의 관계

초경전 생리정보제공원과 초경시기와의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2-5, $P < .05$) 4학년때에는 선생님을 통한 교육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채 83.3%가 어머니로서 대부분이 어머니가 정보제공원이었고 5학년때에는 54.6%가, 6학년은 32.2%가 어머니가 정보제공원이 되어 어머니를 통한 정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생리현상에 전혀 무지이거나 일어날 시기를 예기치 못할 때는 심한 심리적 고민이나 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며 그것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김정희, 1977) 이 시기에는 여성생식기 및 월경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월경이 친구들과 다를 때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기의 신체가 정상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하등, 1978) 초경전 생리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성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가 연결되어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이, 최, 1978) 학교에서의 생리교육도 중요한 데 본 조사결과 4학년부터 초경이 시작 되었으나 학교에서의 교육은 5학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때 학교교육의 생리교육 시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초경전 생리시식정도, 생리에 대한 태도, 초경처리실태, 생리 증상, 초경 반응, 현재 생리에 대한 반응은 초경시기와는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및 제언

국민학교 아동들의 최근의 생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학교 여아들에 대한 성교육 기초자료를 삼고자 1989년 5월 20일부터 동년 6월 3일까지 서울시내 7개 공립국민학교 여아 8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월경 실시율은 13.9%였으며 조사대상 전체중 4학년에 0.7%, 5학년 5.8%, 6학년에서 7.0%가 초경을 경험하였다.
2. 초경전에 월경에 대하여는 31.1%가 확

< 표 2 >

초경시기와 제삼태와의 관계

		4 학 년 실 수 (%)	5 학 년 실 수 (%)	6 학 년 실 수 (%)
1) 초경전 생리지식	$x^2 = 5.58$	P > .05		
확실히 알았음		2 (33.3)	17 (34.7)	18 (30.0)
약간 알았음		3 (50.0)	25 (51.0)	40 (66.7)
몰랐음		1 (16.7)	7 (14.3)	2 (3.3)
계		6 (100.0)	49 (100.0)	60 (100.0)
2) 생리에 대한 태도	$x^2 = 6.54$	P > .05		
당연한 것		6 (100.0)	27 (54.0)	27 (45.0)
어쩔 수 없는 것		0	7 (14.0)	10 (16.7)
안 했으면		0	16 (32.0)	22 (36.7)
계		6 (100.0)	50 (100.0)	59 (100.0)
3) 초경처리상태	$x^2 = 5.06$	P > .05		
혼자 처리함		1 (16.7)	14 (28.0)	9 (15.0)
도움 요청		4 (66.6)	31 (62.0)	48 (80.0)
들켜서 처리됨		1 (16.7)	5 (10.0)	3 (5.0)
계		6 (100.0)	50 (100.0)	60 (100.0)
4) 생리증상	$x^2 = 4.65$	P > .05		
있음		2 (33.3)	8 (16.7)	21 (35.0)
없음		4 (66.7)	40 (83.3)	39 (65.0)
계		6 (100.0)	48 (100.0)	60 (100.0)
5) 초경전 생리지식 제공자	$x^2 = 17.73$	P < .05		
선생님		0	6 (13.7)	24 (42.9)
어머니		5 (83.3)	24 (54.6)	18 (32.2)
친구		0	2 (4.5)	4 (7.1)
책		0	2 (4.5)	4 (7.1)
기타		1 (16.7)	10 (22.7)	6 (10.7)
계		6 (100.0)	44 (100.0)	56 (100.0)
6) 초경반응	$x^2 = 1.67$	P > .05		
긍정		0	8 (16.7)	12 (20.7)
부정		6 (100.0)	40 (83.3)	46 (79.3)
계		6 (100.0)	48 (100.0)	58 (100.0)
7) 현 생리반응	$x^2 = 0.9$	P > .05		
긍정		3 (50.0)	19 (38.8)	19 (32.8)
부정		3 (50.0)	30 (61.2)	39 (67.2)
계		6 (100.0)	49 (100.0)	58 (100.0)

실히 알고 있었으며 59.7%는 약간 알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원은 어머니가 1위였고(43.7%) 2위는 선생님(27.8%)이었으며 초경시기와 정보제공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P < .05$)

3. 월경에 대하여는 52.9%가 당연하다고 보았으며 14.3%는 어쩔 수 없이 해야하는 것, 31.9%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태도를 나타내었다.

4. 초경시 20.2%는 혼자 처리하였으며 72.3%는 도움을 요청하여 처리, 7.5%는 들켜서 처리되었다.

5. 72.3%가 생리시 증상이 있었으며 증상내용은 복통(84.9%), 권태감(26.7%), 현기증(20.9%) 순이었다.

6. 초경시 16.8%는 긍정적 반응을, 79.0%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생리에 대하여는 35.3%가 긍정적 반응을, 62.2%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서 국민학교 교과과정에 체계적인 생교육이 삽입되어야 할 것과 생리교육 시기는 현행 5학년에서 4학년으로 낮추어 실시하되 생리적, 심리적 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것과 양호교사들은 어머니 회의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생교육 방법을 어머니들에게 지도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강현숙, 김명엽, 일부 도시지역에 있어서 중고교생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 간호학회지, 2(1), 1971, 63-72.
2. 강희섭, 일부 도시지역 여성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 잡지, 8(1), 1971, 179-192.
3. 고영애,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학생의 월경 실태조사, 적십자 간호, 2(1), 1979, 77-84.
4. 김계숙, 아동성장 발달과 건강지도, 신광출판사, 1984, 312-313.
5. 김미화,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1), 1983, 21-36.
6. 김성태, 발달심리학, 법문사, 1969, 242-250.
7. 김순임, 월경이 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2(5), 1977, 539-541.
8. 김영숙, 여고생의 생리현상과 정신위생에 관한 조사, 중앙의학, 31(6), 1977, 635-639.
9. 김영숙, 국민학생들의 생교육에 관하여, 중앙의학, 29(6), 1975, 589-592.
10. 김영희·박점희, 여아의 초경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9(2), 1970, 37-39.
11. 김인숙, 여고생 생리교육에 관한 실태현황, 김천간호전문학교 논문집, 2, 1974, 69-85.
12. 김정휘,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1977, 139-154.
13. 문정숙·양경자, 서울시내 일부 국민학교 여아의 월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조사, 경희간호연구지, 1980, 5-15.
14. 민영순, 발달 심리학, 교육출판사, 1977, 288.
15. 박공례, 월경이 수업과 실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병설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3, 1981, 45-59.
16. 박동림, 월경곤란증의 최근 동향, 인간과학, 6(10), 1982, 643-646.
17. 박상하, 김은익,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연구, 인간과학, 8(8), 1984, 25-29.
18. 박종선, 국민학교 아동의 월경에 대한 지식태도, 진주간전 논문집, 1(1), 1977, 5-14.
19. 박아청, 현대 발달심리학, 형설출판사, 1983, 227.
20. 변희재,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최신의학, 22(3), 1979, 120-131.
21. 서문자·박영숙, 일부 중·고·대 여학생 및 근로여성의 월경 곤란증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의학, 32(5), 1977, 549-557.
22. 윤덕주·김인혜, 일부 도시지역 여고생의 월경에 대한 지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 구, 경희간호연구지, 1977, 5-12.
23. 윤혜나, 서울시내 일부 근로여성의 생리인정에 대한 조사연구, 경기간전 학술연구회, 13, 1982, 383-395.
 24. 이경식, 일차보건의료과 지역 사회 간호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78, 244-245.
 25. 이광옥·최영희, 가족 보건학, 수문사, 1978, 180.
 26. 이문숙, 도시지역 국민학교 학동의 여성생리에 관한 조사연구, 공중보건잡지, 18(2), 1971, 329-336.
 27. 이미라, 사춘기 여성의 생리현상 인정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30(1), 1976, 67-70.
 28. 이영희, 월경이 학습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14(4), 1975, 72-77.
 29. 이효재, 가족과 사회, 경무사, 1987, 318-320.
 30. 이희영, 성에 관한 순결교육, 대한간호, 3, 1964, 15-35.
 31. 장병림, 아동 심리학, 법문사, 1972, 81-83.
 32. 제석봉·정진형, 정신위생, 학문사, 1982, 94.
 33. 최정숙, 여고생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 공주간전논문집, 8, 1981, 39-48.
 34. 최정자·박만룡, 산과 및 부인과 간호학, 수문사, 1970, 208.
 35. 하영수의 3인, 아동간호학,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1978, 125.
 36. 황덕준, 사춘기 자녀의 정신건강, 진남 매일신문, 1975.9.11일자
 37. Black, Florence G. and Wright, F. H., Essential of Pediatric Nursing, 7th ed., J.B.Lippincott co., Philadelphia, Montreal, 1963, 743.
 38. Inman, Merile, What teenager want in sex education ?, A.J.N. 74, october, 1974, 1866-1867.
 39. Kinsey, Alfred C. and others, Sexual behavior in the human female, Philadelphia and London, W.B.Saunders co., 1953, 132-190.
 40. Mandetta, Anne F. and others, Learning about human sexuality-A courses model, Nursing outlook, 22, August, 1974, 525-527.
 41. Marlow, Dorothy R., Textbook of Pediatric Nursing, 3rd ed., W.B.Saunders co., Philadelphia, Toronto, 1969, 617.